육체‘나’, 성령‘나’

(마12:22~37)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절대 용서화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성령모독 죄와 관계해서 제목을 <육체‘나’, 성령‘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좋게 받아 들였으면 또 반갑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갑게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자기들의 입지가, 예수님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논쟁의 주제가 바뀌면서 더 치열해지게 됩니다.
참 끈질기게 예수님을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집니다.
기어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결코 용서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저주의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면까지 치닫게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과열됩니까? 이 예수님과의 논쟁이.
그리고 성령의 모독 죄 이 무서운 죄의 자리까지 기어코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언명하십니다.
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령모독 죄를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착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령모독 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마태가 갖고 있는 독특한 복음적 인간론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적 인간론,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우리가 성령모독 죄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신앙인이라고 표방하고 살고 있는 중에 성령모독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모독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가 이 12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갖게 되는 이 마태 속에 들어있는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론의 내용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인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격이 뭐지요?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생긴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생겨요, 근데 마음에 어떻게 '나'라는 의식이 생깁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두 가지 길을 통해 이 마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나'라는 생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육체'나'가 있고 성령'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그랬죠?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 위에는 영의 세계, 하나님아버지가 영이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영이시고, 성령께서 영이신 그 영의 세계인 하늘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공중 그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가 있고 육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 '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가 되는 겁니까?

마음에 어떻게 '나'라는 의식이 생겨납니까?
육체를 통해서 '너'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육체를 '너'로 만나면서 '나'라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나'라는 의식이 생기려면 반드시 '너'가 있어야 되요, 누군가는 상대자가 있어야 '나'라는 의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죽으면 '너'라고 할만 것이 모래밖에 없는데 그 모래를 상대로 '나'가 형성되어 봐야 나의 내용이 없어요.
나의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나는 아빠입니다, 지금 나는 남편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직장의 직원입니다, 지금 나는 학생입니다. 이게 다 '너'를 통해 생겨나는 '나'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너'가 있어야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나'는 육체를 통해 만나는 또 다른 육체를 '너'로 삼아서 '나'가 되는 것이지요.
아내를 만나서 남편이 됩니다, 내가 남편이에요, 내가 아빠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아빠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나'가 있고, 또 성 '나'는 그러면 뭡니까?
성령'나'는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너'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자리에 서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분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을 상대자로 삼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마치 육체의 '나'가 또 다른 육체를, 육체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끼면서 관계하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면서 '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 되는 '나', 이게 바로 성령'나'에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다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라고 내 뱉으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육체'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나'가 어떤 나냐? 독사의 자식들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십니까?
'종신토록 배로 땅을 기어 다닌다'
다시 말해서 배가 땅에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어 배부르리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마음을 땅에 붙이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다니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게 바로 사탄이고 사탄의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너무나 큰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 속에서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는다고 그럴 때,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왜 큰~ 오해냐 하면, 내가 성령을 받는다 할 때 그 나는 이미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나'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성령'나'와 육체'나' 둘 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나'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육체'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육체'나'가 마음과 육체가 연합되어있는 '나'가 성령을 덧입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할 때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상태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가 되신 상태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고 계셨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먼저 나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나'가 되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가 되신 뒤에 제자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송 있잖아요?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이 노래는 가사가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존재하고 '나'로서 성립이 되어 있으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나'로. 성령 받아서 '너'가 되는 겁니다.
'나 성령 받았네'가 아니라, '성령 받아 나 되었네, 성령 받아 너 되었네, 성령 받아 우리 되었네~~' 노래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나'로 새롭게 '나'가 되는 것이지, 육체'나'가 있으면서 누구의 아빠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어느 직장의 직원으로, 어느 학교 학생으로 선생으로,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나'가 있으면서 그 '나'가 아무개 아빠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말로 거부하고 거스른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성령'나'밖에 없어요.
성령과 내 마음이 연합된 상태로서의 '나'가 구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로 '나'되게 하는, 내가 성립할 수 있기 위하여 근거가 되는 성령을 부인하면, '나'라는 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나'로 아예 존재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건 용서받지 못해서 멸망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는 '나'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육체‘나’로 우리는 나를 알고 있고 그 육체‘나’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거부하던지 성령을 모독하던지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나’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근거된 ‘나’ 자체를 거부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를 하고, 말고 이전에 존재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성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어떤 ‘나’? 육체‘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육체의 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대부분 육체의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바리새인을 지적하실 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무슨 쌓은 악이 있겠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도 참 이상하십니다.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민족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게 마태 세리에요.
그리고 창녀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다 쫓아내시고, 그에게 돌을 던지던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그 여자를 용납하십니다.
참 더러운 죄인들 아닙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시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스스로 법을 마음에 지니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악을 쌓았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악을 쌓은 건 세리와 죄인들 아니에요? 창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악의 토대입니다.

아무리 범죄가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리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아무리 도둑질 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육체가 마음과 연합되어서 육체를 통하여 '나'가 된 인격은 그 연합상태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육체를 통하여 접하는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악을 쌓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연합한 그 악의 토대 위에 행동을 하는데, 눈에 드러난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인륜의 법 기준으로 볼 때, 도덕과 윤리로 볼 때 범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스스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와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와 창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회 안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도 타인도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이 붙어서 육체'나'로 살고 있는 상태를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죄인이면서 살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육체'나'인 상태를 의롭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왜? 성령'나'로 다시 태어나라고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 그 천국 앞에서 성령을 근거로 한 인격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거부하면서 육체의 '나'인 상태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육체의 '나'로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육체'나'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육체'나'를 고집하고 있는 한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육체'나'인 상태로 나옵니다.
육체'나'는 어떤 '나'에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에요.
그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 가정에 과제가 있고, 이걸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육체의 '나'가 하나도 부스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몰라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상태를 누군가는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적을 해 줘야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건 줄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상태가 끝이 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나'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몸과 마음이 연합되어 이루어진 육체와 마음이 연합되어 이루어진 육체'나'가 죽는 것입니다.
그때에 육체의 '나'로 있으면서 쌓은 모든 악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모~든 것들이 다 죽으니까 그 육체'나'가 죽는 거니까 그걸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용서를 받으면서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처음의 '너'를, '나'가 될 수 있는 '너'를 성령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나'가 되고, 예수님을 '너'로 해서 처음으로 '나'로 태어났을 때, 내가 이제 아내를 만나면, 그전에는 아내와 관계에서 남편으로서 육체의 '나'로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육체'나'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구원해주신 양으로서 아내를 만나게 될 때, 나는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아내와 만나는 자리에서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모독 죄는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이 성령 그 자체를 대놓고 모독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지요.
구약에서 제한적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성령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그 성령 자체를 말로 대놓고 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육체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육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나'로 태어났거나, 주님께서 성령'나'로 사셨거나, 이웃집 아저씨가 성령 '나'로 되거나 할 때, 그 모든 성령은 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집 아저씨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내가 성령 '나'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 아저씨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좋아하지요, 반가워하지요.
그런데 육체 '나'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존경 받고 인정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육체 '나'를 '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에서 나타나는 하늘나라의 사건들이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모독,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육체'나' 이게 독사의 자식입니다, 지금 상태가.
마음이 육체에 연합해서 육체를 통해 '나'가 되어있는 상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이 상태를 끝가지 고집하면 결국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모독 죄에까지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육체'나'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거지요, 굳건하게.

여러분, 하늘나라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육체'나'를 붙잡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나타나질 않고 있으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나'로 살아도.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전달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육체의 '나'가 죽고, 성령의 '나'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나를 고집할 때,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세계는 성령을 모독할래야 모독할 수가 없고 그냥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상태이지마는, 이 사탄의 지배아

래 살았을 때 그 인격의 구조를 교회 안에서 끝까지 고집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육체의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선포 받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를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나는 하루 십자가 붙잡고 죽은 자로서 성령'나'로 살았다고 다음날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나'가 날마다 깨질 것을 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 이유에서고…
날마다 육체의 '나'는, 자고 일어나면 육체'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성 - 몸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죄적 존재가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육체의 '나'가 죽고 성령의 '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육체의 '나'로 붙은 상태에서, 육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그대로 존속되어서 돈 안 벌리면 슬퍼하고, 돈 벌리면 기뻐하고, 뭐 자식이 좀 대학에 입학시험 합격하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그냥 그대~로 흡수된 상태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나 스스로가 성령'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거로 해서 구조적으로 완결되는 '나'자체를 거부하는 거니까, 나 스스로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야기다 이거지요.

육체'나' 성령'나'
여러분, 성령'나'와 육체'나'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육체'나'를 죽이고 성령'나'로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모독 죄는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도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나의 육체의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연합하여 죽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승천하신 주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성령'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